

기존 의료시스템, 감염병과 괴리 크다

지난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환자를 격리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의료시스템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노출된 지금 상황에서 기존 의료시스템은 코로나19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준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7세기는 임진왜란의 여파와 함께 시작하였고 병자호란에 의해 두 번의 전쟁을 겪는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17세기 후반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재난 속에서 기근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민초들은 전장의 먼지와 화약 냄새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게다가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 잇따라 기근을 겪으며 허약해져 있었다.

나라에 역병이 돌았다. 전쟁보다 더 비참했고,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 무당이 나서서 굿을 했고 역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제(祭)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대구 사태를 보니, 이러한 종교의식마저도 감염의 전파 경로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이 시기 재난 발생은 빈도와 범위 모든 면에서 그 이전과 차이를 보였다. 전염병은 조선 전기에 이르자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다. 수도인 한양 뿐만 아니라 궁궐까지 천연두 발생 가능 지역이 될 정도로 위태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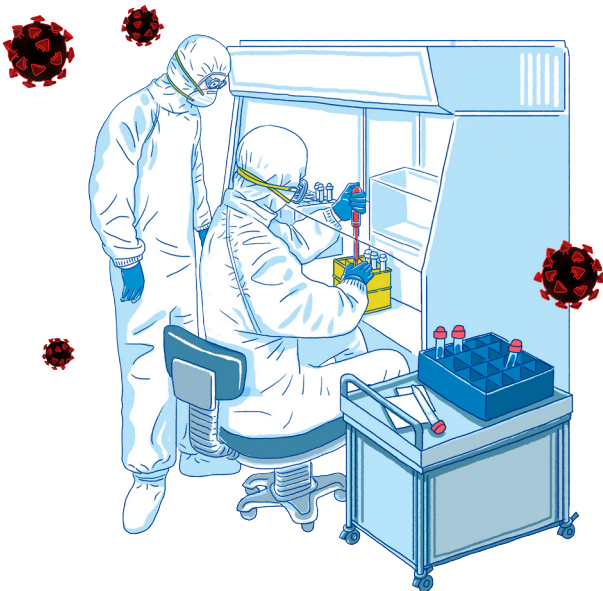
영화 <컨테이션(2011)>은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다는 내용이다. 영화 도입부에 주인공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홍콩 공항에서 맥주를 마신다. 이때 카메라는 전염의 가장 직접적 경로인 손을 따라 움직인다. 맥주잔, 휴대전화 등을 만진 주인공의 손이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전하고, 직원은 결제한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곧 증상을 보이고 신종 전염병의 첫 사망자가 된다.

이 장면은 최근 가속화된 세계화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질병 전파의 가능성이 전례 없이 높아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국지적 유행으로 끝났을 질병이 이제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타격을 줄 수 있게 됐다.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노출된 상황이라 날이 갈수록 진단되는 환자는 많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사태가 진정되면 예방과 건강증진이 중심인 일차보건의료체제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환자를 격리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의료시스템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노출된 지금 상황에서 기존 의료시스템은 코로나19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증 감염환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몰려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진다.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노출된 상황이라 날이 갈수록 진단되는 환자는 많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사태가 진정되면 예방과 건강증진이 중심인 일차보건의료체제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삶의 기반인 업무 공간에서도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단순히 사망자 수를 넘어 국경 통제 및 무역, 교통 등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앞서 언급한 일차보건의료체계는 이미 사업장에 잘 정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진 ‘보건관리제도’다. 이 제도는 질병이 아닌 건강에 초점에 맞춰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한 환자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쉽게 말하면 사업장 주치의 제도를 말한다.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전염병 확산 감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태에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대책인 개인 보호구(손 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몇몇 식품업체가 ‘메르스에 효과’를 노리며 허위 광고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있다. 기업이 공포, 불확실성, 의혹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는 공포 마케팅으로 불안감만 조성하고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는 악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역할은 사업장 내 노동자들에게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며 지침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업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역할은 사업장 내 노동자들에게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며 지침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